

무더위에 손님 줄고 가격은 오르고…상인들 ‘시름’

광주 양동전통시장 가보니

더위 식히려 선봉기·부채질 의존
상추 등 농수산물 가격 크게 올라
시설도 노후돼 힘겨운 여름나기

“날이 이려고 더운디 누가 전통시장에 오려고 하겠소. 물건값도 겁나게 올라서 한철 버텨내기도 힘들제.”

지난 14일 오후 찾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전통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탓에 한산한 풍경만이 이어졌다.

주말동안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연일 지속되던 폭염주의보는 잠시 해제됐지만, 습한 공기와 3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는 여전히 시장 상인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상인들은 호스를 이용해 시장 곳곳의 통로에 물을 뿌리며, 체감기온을 낮추기 위한 사투를 벌였고, 채소가게 주인들도 좌판 위의 상품이 시들지 않도록, 분무기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 연신 물을 뿌리는 모습이었다.

양동시장에서만 50년째 장사를 해온 정모(76)씨는 이마에 땀임없이 흐르는 굵은 땀방울을 닦아내며, 막간을 이용해 힘찬 부채질로 더위를 식혔다.

정씨는 “요즘은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을 선호하는 추세라 시장 매출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복새통을 이루던 과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이용하는데, 건강을 위협하

는 더위 탓에 그마저도 크게 줄었다”고 토로했다.

드문드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넉넉한 인심을 더해 푸짐한 덩을 얹어주고 있지만, 폭염과 이상기후로 주요 채소류 가격이 뛰면서 정씨와 손님들 모두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그는 “특히 시금치와 열무 값이 많이 오른 것 같다”며 “단골 손님들을 잡으려 애쓰고 있지만, 치솟는 물건값에 쉽지만은

않다. 그저 울여름도 버텨내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 지난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격정보지 2513호’에 따르면, 7월 2주차 양동전통시장의 주요 상품 가격은 폭염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재배가 어려워진 업체류인 상추(100g)는 출하량 감소로 2주 전보다 100%나 상승한 660원에 거래됐고, 배추(1포기)도 10.3% 오른 3860원을 기록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어려움도 다르지 않다. 무더위에 지친 상인들은 선풍기 앞에 앉아 팔리지 않는 생선들을 바라보며, 애꿎은 파리 떼만 쫓아냈다.

최근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든 데다 여름철 수산물 수요 감소가 겹쳐 손님의 발길이 뜸 끊기게 되면서, 이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박정애(67)씨는 “가뜩이나 여름철에는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어 장사가 안되는

데, 고수온 영향까지 겹쳐 원가도 급격히 오른 것을 체감한다”며 “세를 내지 못하고, 애만 태우는 상인도 많다”고 털어놨다.

농수축산물 등 기후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시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직면하는 지역 밥상머리 현장의 최전선이다.

여기에 손님의 급격한 감소와 노후화된 시설에서 비롯된 더위에 취약한 근로환경까지 삼중고가 겹치면서 상인들은 올해도 ‘고된 여름나기’에 나서고 있다.

박정림(76)씨는 “지난주에 2만원대에 샀던 상추 1박스를 오늘은 3만원 넘게 주고 샀다. 손님도 줄어든 탓에 요즘은 겨우 구색만 맞춰서 장사하는 수준”이라면서 “매년 힘들지만, 수십년간 장사하면서 울여름이 가장 버거운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지난달 수출 광주 2.1% 증가·전남 7.4% 감소

광주세관, 지역 수출입동향 무역수지 9억9700만불 흑자

지난달 광주지역 수출은 증가한 반면 전남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이 15일 발표한 2025년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한 47억5800만불, 수입은 1.7% 감소한 37억6100만불, 무역수지는 9억97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6월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2.3% 감소했으나, 수입이 9.0% 감소해 무역수지는 64억3100만불 흑자를 보였

다. 광주지역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14억3300만불, 수입은 46.1% 증가한 7억4200만불로 무역수지는 6억91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4.3%)·반도체(13.6%)·기계류(5.3%)가 증가했고, 가전제품(42.9%)·타이어(29.4%)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58.5%)·고무(22.3%)·기계류(17.2%)·가전제품(27.6%)이 증가했

고, 화공품(46.7%)이 감소했다.

전남지역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4% 감소한 33억2500만불, 수입은 9.0% 감소한 30억1900만불로 무역수지는 3억6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수송장비(38.8%)·기계류(150.2%)가 증가했고, 석유제품(3.7%)·화공품(26.2%)·철강제품(2.0%)은 감소했다. 수입은 철광(6.9%)이 늘었고, 석유제품(27.2%)·원유(15.6%)·석탄(11.2%)·화공품(24.1%)이 줄었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일루미엘과 콜라보 이벤트

예·적금 가입 이벤트 실시 비대면 신규 고객 화장품 제공

광주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눈치게임적금’, ‘굿스타트예금’, ‘이자먼저Wa예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일루미엘(illumiel)’과의 협업을 통한 ‘눈치게임 굿스타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눈치게임적금’에 월 20만 원 이상 12개월 가입 시 일루미엘 마일드 클리어 순삭 폼클렌징(단일 제품) 무료 교환권을 선착순 1만명에게 제공한다. 이벤트 시작 전 가입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굿스타트예금’ 또는 ‘이자먼저

Wa예금’을 3000만 원 이상 12개월 가입 시 일루미엘 소프트 타이팅 감태 크림(50ml) + 감태 세럼(30ml) 세트 무료 교환권을 선착순 3000명에게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기가입자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이벤트 조건 충족 시 별도의 응모 없이 자동으로 참여되고, 가입 익월 20일에 일루미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출시된 ‘눈치게임 적금’은 가입 시 1:1 랜덤 매칭된 2명의 가입자 중, 가입자 중 1인이 중도해지하고 남은 가입자 1인이 이 예금을 만기 해지한 경우, 만기 해지한 가입자 1인에게 만기우대금리 및 매칭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저

축의 재미와 최대 연 6%의 높은 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굿스타트예금’은 광주은행 첫 거래 고객 또는 최근 1년간 광주은행 정기에금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자먼저Wa예금’은 가입 즉시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선이자 지급식 예금 상품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1000만 원 이상 12개월 가입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세 가지 상품 모두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와뱅크와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벤트 및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와뱅크,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광주경총, 18일 김동규 성악가 초청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8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이탈리아 아라스칼라극장 주역가수 김동규 성악가를 초청해 ‘이 장면을 아시나요?’를 주제로 제1692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김동규 성악가는 현재 상명대학교 석좌교수로 연세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을 전공해 중앙음악, 나폴리 살레르노 성악,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한국방송대상 성악가상을 수상했다.

이번 강연은 △콩쿠르 성악 △나폴리 살레르노 성악 콩쿠르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한국방송대상 수상 △오페라 대상 남자주역상 △음반 △방송, 영화, 라디오 등 오페라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롯데백 광주점, 르쿠르제 ‘블루대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르쿠르제 매장
에서 무더운 여름 식탁에 파란색의 청량감을 선사하는 ‘블루대전’ 행사를 오는 31일(목)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르쿠르제의 블루아이템인 캐리비안 블루와 마르세유 라인의 접시, 냄비, 밥그릇, 국그릇 등 다양한 상품들을 40~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현대차, 캐스퍼 연식변경 모델 출시

안전·편의사양 강화

현대차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연식변경 모델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인포테인먼트 사양과 안전·편의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6 캐스퍼의 모든 트림에는 LED 실내등과 1열 4웨이 헤드레스트(머리받이)가 적용됐고 밴 모델을 포함한 모든 모델에 실내 소화기가 추가됐다.

디에센셜 트림부터 10.25인치 내비게이션, 자동 눈부심 방지(ECM) 룸미러, 1열 LED 선바이저 램프 등이 적용됐고, 스마트 트림에는 수동 눈부심 방지(D&N) 룸미러와 운전석 LED 선바이저 램프가 탑재됐다.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 전 트림에 ECM 룸미러와 1열 LED 선바이저 램프가 기본 적용되고 실내 소화기가 추가됐다. 인스퍼레이션 트림부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곡선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정면 대향차)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이 지원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는 강인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을 갖춘 현대차의 대표 엔트리 SUV”라며 “더욱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온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은 고객에게 한층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